

## 양 심

“윤 박사님이십니까?”

음성은 곱고 애잔하며 조심스러웠다. 기억에 없는 음성이다.

“누구신지요?”

윤 박사는 의아해 했다.

“저 전, 전…….”

“잘못 거신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윤 박사님, 전 이효진 씨 자릅니다.”

이효진 씨는 윤 박사가 맡고 있는 환자다. 그는 신장 기능이 극도로 쇠퇴되어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네에, 그러세요.”

“실은 저희 아버님…….”

말은 여기서 끊어져 한참을 잠잠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만 있을 수 없어 윤 박사는 재촉을 했다.

“아빠는 서른 살이에요. 앞으로 긴 세월을 신장 하나만으로 살아가야겠지요.”

말은 여기서 또 끊어지고 전화선을 타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수화기는 놓여졌다. 뜻하지 않았던 충격이었다.

윤 박사는 다급히

“여보세요, 여보세요.”

소리를 지르다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집 전화 번호를 돌렸다. 좀 전의 그 고운 음성이 전화를 받았다. 아직도 젖어 있는 음성이었다.

“저 윤명로예요. 아까 하신 말씀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고운 음성은 몹시 당황해 하며

“아니에요. 지가 잘못했어요. 제 혈액형이 O형이었으면 했던 거예요. 전 A형이라서요.”

하다가 어조를 같고 깍듯이 덧붙였다.

“죄송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말씀을 드렸나 봐요.”

“아니에요. 하여튼 기다려 보세요.”

윤 박사는 전화를 끊었다.

“환자예요?”

앞에 앉아 있던 구여사가 물었다.

“아녜요.”

윤 박사는 미간을 찌푸린 채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윤이 흐르는 얼굴에 곱게 화장한 얼굴, 루주가 좀 짙고 손질이 잘 된 손톱이 주부의 것으로는 지나치게 길며 요즘 유행형인지 머리를 잘게 지져 이마를 가린 구 여사가 이 순간 지겹고 밀살머리스러웠다.

별 나쁜 데도 없는데 이런 여자는 아픈 데가 많단다. 돈이 많고 틈이 많고 허욕이 많고 할 일이 없고 성실성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서 자기 과시가 하고 싶은 이런 종류의 여자들…… 두통이 나고 사지가 쑤신다며 법석이고, 심지어는 배가 나오는 것까지 병일 것이라고 찾아와서는 눌어붙어 자랑 섞인 잡담으로 시간을 뺏는 이런 여자들이 남달리 깔끔한 그의 성미에 거슬리는 것이었다.

그는 이효진 씨의 누르딩딩한 부석한 얼굴을 상기했다. 이효진 씨

는 그의 오래된 환자다. 신장을 앓은 지는 오래다. 피로를 피하게 하고 염분을 절제하고 이뇨(利尿)를 돋고 오랜 세월을 조심스럽게 지켜 왔는데 그의 병세는 근래에 와서 부쩍 나빠져 있었다. 혈압이 250 이상이 된 지는 꽤 오래고 요량(尿量)은 50cc 이하로 떨어질 때가 많았다. 육십팔 세 — 저항력이 저하될 나이이기도 했다.

그가 인공 신장기를 쓰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 전부터다. GFR—사구체 여과율(絲毬體濾過率) — 이 5퍼센트로 떨어졌을 때 윤 박사는 그 때는 국내에는 없었던 인공 신장기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자 곧 이효진 씨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치료를 받았다. 그 후 이 기구는 국내에도 들어와 이효진 씨는 주기적으로 이 끔찍한 치료를 계속 받아 왔던 것이다.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골프도 치고 사무실에 나가 결재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신의 혈액을 빼어 기계에 넣고 혈액 속의 요독(尿毒)을 걸러 버린 후 깨끗해진 혈액을 혈관 내에 도로 넣는 이 최신 요법에도 한계가 있고, 또 신장 이식의 성공률이 높아지자 의사도 환자도 보기에 끔찍하고 번거롭고 고식적인 이 치료법을 중지하고 이식을 결의했던 것이다. 이효진 씨의 병세는 그런 단계에 와 있기도 하였다.

결정은 지었으나 장기(臟器) 입수가 문제가 되었다. 첫째로 부인이 자기 신장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그녀의 혈액형은 B형, 환자의 O형에는 맞지 않았다. 그들은 적당한 장기 입수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손은 다 써 보아도 목적 달성을 여의치가 않았다. 이런 마지막 장애 앞에서 환자는 더욱 초조해 하고 이성을 잃어 갔다. 결국 차남인 민규가 자기 신장을 제공하기로 되었던 것이다.

남이 죽는 것은 내 고뿔만 못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엄청난 중환자를 취급하고 있는 만큼 구 여사의 엄살은 역겹고 짜증스러웠다. 오후 네 시의 피로가 그를 얼마큼 매몰차게 하고도 있었다. 참을성 많고

부드럽고 진지한 그의 입에서 자기도 뜻하지 않았던 매운 말이 튀어 나왔다.

“모두 정상입니다. 돌아가세요. 네, 식모를 하나만 두시죠. 걸레 질이 배 나오는 데는 제일 좋거든요.”

그는 구 여사보다 먼저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려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빠는 서른 살이에요.’

하던 그 곱고 애잔한 음성이 되살아났다. 서른 살이에요, 서른 살이에요, 서른 살이에요…….

윤 박사는 그 말이

‘아버님은 예순여덟이시죠.’

로 들리는 것이었다.

“바쁘신 모양이시죠.”

민망스러웠는지 구 여사가 일어서며 말했다.

“네, 바쁩니다.”

구 여사도 더 이상은 버티지 않았다.

외래의 진료 시간은 끝나 있었다. 그러나 윤 박사는 네 시 반에 찾아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환자를 기다려야 했다. 그는 지쳐 있었다. 마흔다섯 살 한창 나이의 실력자다. 쉴 시간이 없다. 환자가 많은 그는 입원실 회진을 여덟 시 반부터 한 시간 동안 외래 환자를 보기 전에 하기로 하고 있었다. 자택은 영동이다. 일곱 시 반에 일어나 여덟 시에는 집을 나와야 한다. 어려운 병이면 M 의대 병원의 윤 박사한테 가보라는 말을 곧잘 듣는다. 그의 진지한 사람됨, 풍부한 지식, 명석한 판단과 그칠 줄 모르는 학구욕은 온화한 성품과 아울러 누구에게나 신뢰와 존경을 갖게 했던 것이다.

환자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다. 잘사는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지치면서도 피로의 빛을 환자에게 보인 일이 없다는 것이 정평이었다. 그러면서 구 여사 같은 종류의 사람에겐 가

차없었다.

일주일에 몇 번 있는 강의, 빈번히 위촉받는 학회에서의 논문 발표, 집에까지 쫓아오는 환자들, 전화 문의 등등, 그는 정말 너무 바빴다. 피로를 느낄 사이도 없을 만큼 바빴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는 몸을 뉘고 눈을 감는다.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며 이때도 그는 두 다리를 길게 뻗고 의자등에 몸을 뉘고 눈을 감았다. 요즘 와서 가끔 일어나는 현기가 엄습해 왔다. 눈을 감으면 거꾸로 서는 것 같은 역립감(逆立感)이다. 그는 얼른 눈을 떴다. 그러자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하얗게 칠한 천장은 깨끗했으나 보일듯말듯한 굴곡이 남으로 난 창으로부터 얕게 들어오는 햇살을 받아 아롱아롱 형태 없는 무늬를 그렸다. 어지럽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천장에서 아롱거리고 있던 무늬는 고스란히 감은 눈 속에서도 아롱거렸다. 마음속에서도 석연치 않은 어느 충격과 저항감이 아롱거렸다.

예순여덟 살과 서른 살…… 하나는 자기 몸의 일부분을 떼어 주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받아 생명을 연장시킨다. 신(神) 외에는 조정치 못했던 생명체가 산 채로 떼어지고 옮겨져서 또 하나의 생체(生體)를 소생시키는 것이다. 엄청난 일이다.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저절로 흥분이 되었던 일이 아닌가. 누가 감히 이런 일이 이루 어지리라고 예측이나 할 수 있었던 것인가. 크나큰 의학의 승리요, 인간의 영역이 신의 그것에까지 넓혀진 느낌마저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의 힘을 넘어설 때 자칫 잘못이 파생된다. 인간의 판단이란 절대적인 것이 못 될 때가 많고, 옳다고 느꼈던 것, 옳게 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기실 잘못이었고 잘못 처리되었던 것일 수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승리의 그늘 어느 한구석에서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처음으로 그의 팀이 장기 이식에 성공했을 때의 그 감격을 영

원히 잊을 수 없다. 그것은 그가 학위를 받을 때 엄숙히 서약한 바대로 그 자신이 ‘인류 봉사에 바쳐지고 있다’는 강렬한 실감이었으며, 또 자기 내부에 충만하고 있는 생명의 광채(光彩)와 무한한 가능성의 확신이기도 하였다. 사실 국내 최초의 장기 이식 수술의 성공은 의학의 승리인 동시에 인간의 찬가(讚歌)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에게 주어진 숭고한 어머니의 장기는 그대로 아름다움이었다. 그러므로 그 수술 광경은 장엄한 종교적인 의식 같은 느낌마저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생에 대한 애착은 누구에게도 있고 생명의 보존은 누구에게도 허락된 권리다. 누구나가 살고 싶다. 보다 길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러나 이 강렬한 욕망 앞에서 인간은 어긋날 때가 있고 추해질 때가 많다.

장기 이식 희망자는 의외로 많다. 그러나 그 장기를 얻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본인의 의사로 사후 장기의 기증이 살아 있을 때부터 약속되는 예가 많다. 하지만, 미묘하고 위험한 반응 때문에 아무나의 것을 아무에게나 옮길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혈육의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 된다. 그러나 신장 하나쯤 떼어내도 무관하다고는 하지만 이론은 어찌되었든 있어야 할 장기가 없어진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생명력을 몹시 감퇴시킨다. 비장한 결의가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 찾아오기로 한 백 노인이다. 그는 오래 신장을 앓고 있었다. 그에게는 자녀가 여섯 있다. 오래 국민 학교 교원 생활을 했다는 그는 노경에 들어 젊었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호강을 하고 있었다. 가난한 국민 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잘 먹이지도 잘 가르치지도 못한 아이들이 잘도 자라, 많은 돈을 벌었단다. 노인은 자가용을 타고 병원에 오고 입원할 때는 특실에 들었다.

노인의 병이 인공 신장기로도 어렵게 되었을 때 토건 회사를 한다는 큰아들이 서둘러 신장 이식을 하기로 결정을 보았던 것은 몇 달

전의 일이다. 윤 박사에게는 지금도 그 때 느꼈던 껴림칙한 일이 마음속의 먼지같이 남아 있다.

장기 이식 때면 따르게 마련인 장기 제공자를 결정할 때였다. 윤 박사는 백 노인의 자녀들의 생활 정도가 고르지 못한 것을 알았다. 장남인 백 사장집에는 초대받은 일도 있어 부유한 생활을 잘 알지만 둘째, 넷째가 그럴싸하게 그만그만하고, 딸 둘도 차림새나 장신구가 보통이 훨씬 넘었다. 다만 시종 입을 열지 않고 있던 셋째 아들만은 그리 누추한 옷차림도 아닌데 궁기가 끼어 보였다. 이를테면 너무나 유행이 뒤떨어진 옷차림, 십년 전에 유행했던, 깃이 좁디좁은 상의 라든가 와이셔츠 넥타이 같은 것이 주는 어색한 인상이 궁기로 보였던 건지 모르나 그가 동기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 모양이었다.

장남인 백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동준이는 다음달에 일본엘 가야 한다구. 성준이는 뭘 한댔지?”

“형님두. 캐나다에서 바이어가 온댔지 않았습니까?”

큰딸은 아들이 고 3이고 작은딸은 —— 결국 잡화상을 한다는 셋째 아들이 당연한 일처럼 윤 박사 앞에서 신장 제공자로 결정이 되었다. 칠남매의 아버지라는 서른아홉 살의 그가, 딸 여섯을 낳은 끝에 겨우 얻은 외아들이 생후 다섯 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그가.

효도라는 명분이 올가미가 되어 이 잘살지 못하는 아들은 자기의 산 신장을 아버지에게 바쳐야만 했다. 그 때의 그 터뜨릴 수는 없었던 울분과 저항감과 충격을 윤 박사는 잊을 수가 없다. 어느 극한의 장소에서는 속절없이 노출되는 인간의 이기심과 추악함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는 그 셋째 아들을 본 일이 없다. 보기가 두려웠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신장뿐이 아니었을 것이고 깊은 곳에 입은 상처는 장기를 생으로 떼어 낸 자리같이는 쉽게 아물 수 없었을 것을 윤 박사는 너무나 잘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신장을 하나 잃었다고 사는 데 지장이 있고 없다는,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이효진 씨의 차남 민규는 그 집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일까. 웬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그 조용한 고운 음성의 며느리는 당돌한 말을 한 것일까, 아니면 당연한 말을 한 것일까.

그는 가난한 셋째 아들의 신장으로 살고 있는 노인의 좋아진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 건강을 되찾은 그 모습에 의사로서의 궁지와 보람은 느껴지지 않고 혐오와 경멸 같은 것이 번져 오며 무엇인지 잘못을 한 것 같은 양심의 아픔조차 아련히 섞이는 것이었다.

“어머, 이것 좀 보세요. 옥파가 이렇게 뿌리를…….”

방을 정리하고 있던 주 간호사가 조그맣게 환성을 올렸다. 윤 박사는 몸을 일으켜 그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창가에는 환자가 갖다 준 철 이른 어제일리어가 한 분 하고, 유리병 물속에 뿌리를 내린 옥파가 싱싱한 잎사귀를 돋히고 있었다.

“어쩜 이렇게 싱싱하게.”

주 간호사는 신기한 듯이 잎사귀를 만지작거리다가

“어머, 이 옥파 헛꺼풀뿐이에요. 새잎을 내느라고 아주 속이 비어 버렸군요.”

윤 박사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다. 최초의 신장 이식 수술 때의 신장 제공자였던 환자의 약질인 어머니의 늙은 얼굴과 이효진 씨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다. 얼굴빛이 보통이 아니었는지 주 간호사가 의아한 듯 눈을 크게 떴다.

그 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대답도 하기 전에 문이 열리고 백 노인의 웃음으로 주름 투성이가 된 얼굴이 나타났다.

노인은 어디가 나빠서 온 것이 아니었다. 혈색이 좋아진 얼굴은 쪼무라져 보이고 부석하던 눈등은 껴져 있었으나 전에는 없던 생기가 감돌고 있었다.

“선생님 덕택으로 새 인생을 갖게 되었죠. 실은 아들이 해외 여행을 시켜 준다 해서요, 제 체력으로 가능한가 알아보려구 왔어요.”

쪽 고른 의치를 드러내고 웃는 노인의 목줄기는 가죽이 늘어나 칠 면조의 그것처럼 흉해 보였다. 좁은 이마에 깊은 상처 같은 주름이 잡히고 흰자위가 맑지 못한 작은 눈 밑에 달린 주머니가 추했다. 이런 노추(老醜)가 윤 박사는 역겨웠다. 온화한 성격인 그였으나 이 노인에게는 다른 환자, 특히 그의 손으로 치유된 환자에게 가져지는 친밀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는 이날 여느 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석간을 들척거리고 있는데 함께 살고 있는 장모가 일곱 살 난 작은 딸과 함께 안방에 들어왔다. 어린 경아는 두 손으로 눈을 후벼 파듯 비비며 훌쩍거리고 있었다.

“에그, 부정을 탄 거야. 그래서 자꾸 들여다보면 안 된다구 했잖았니, 쯧쯧.”

장모는 무엇이 언짢은지 연신 혀를 쳤다.

“허지만 어찌니. 이젠 허는 수 없지.”

“무슨 일입니까. 경아야, 왜 그러지?”

윤 박사는 읽고 있던 석간에서 눈을 떼고 물었다.

“글쎄, 팽이가 새끼를 모조리 먹어 버렸지 뭔가.”

“새끼를요?”

“그렇다네. 짐승은 부정을 타면 제 새끼를 먹어 버리는 거라네.”

“그럴 리가 있나요.”

“한 마리두 없는걸.”

“누가 치워 버린 거겠지요.”

“치우긴 누가 치워. 아무도 손댄 사람이 없는데.”

“그럼 어디 다른 데에 물어다 논 게지요.”

“아냐, 후순이가 먹는 걸 봤다지 뭔가.”

“그런 일두 있나요?”

“있다마다. 돼지두 부정타면 지가 난 새끼를 먹어 버리지.”

“믿어지지 않는군요.”

“인제 나다니니깐 나타나거든 잘 보게나. 새끼 난 후 털이 빠지구 을씨년스럽더니 이젠 아주 함함해졌어요. 사람으로 말하자면 해산때를 벗은 거지.”

“정말 새끼를 먹었다면 영양이 충분히 섭취됐겠지요.”

무심히 말해 놓고 윤 박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자기가 낳은 새끼를 먹고 체력을 회복한 어미 고양이 — 아무리 축생이라 해도 밉다. 그는 성난 소리로 말했다.

“그 괭이 갖다 버리세요.”

“싫어.”

경아가 울음을 멈추고 소리를 질렀다. 아내가 뛰어들어와서

“아니, 무슨 일들이죠?”

“괭이 얘길 허구 있었단다.”

장모가 대답했다. 아내는 경아를 흘겨보고

“아직두 울구 있었어?”

좀 나무라고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글쎄, 그 괭이 고약하군요. 새끼를 한 마리씩 다 먹어 버렸다잖아요. 다섯 마리나. 그래서 경아가 저렇게 울구 있는 거예요.”

“그 괭이 갖다 버리라니깐.”

“괭이는 아무리 멀리 갖다 버려두 꼭 돌아온다네. 영물이거든.”

장모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영물이 제 새끼 먹습니까?”

“그야 부정을 탄 탓이지.”

“부정이 뭐니까?”

윤 박사의 말투에는 노여움이 섞여 있었다.

“이이가 오늘밤 왜 이러시지.”

아내는 의아해 하면서 빈 과일 접시를 거두어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새끼를 먹은 고양이가 방안으로 들어온 것은 이때였다. 고양이는

소리 없이 방에 들어와서 두 앞발을 뻗치고 꼬리를 수직으로 세우더니 뒷발을 길게 늘이고 기지개를 켰다. 고양이의 몸은 유연하고 자유로워 보였으며 세 가지 색을 가진 털에는 윤이 흘렀다. 얼마 전만 해도 꺼칠하고 읊씨년스러워 보였던 것이 그렇게 달라져 있었던 것이다.

제 새끼를 먹고 회복된 어미 고양이 —— 문득 백 노인의 부자연스럽게 고른 의치와 쪼무라쳤으나 생기가 감도는 얼굴이 떠올랐다.

기지개를 켜고 난 고양이는 한쪽 앞발에 침을 묻힌 후 얄미운 동작으로 얼굴을 씻었다. 그리고는 또 앞발을 뻗치고 꼬리를 꽂꽂이 세우고는 몸을 풀고 늘어지게 기지개를 켰다. 마치 거리낌없고 흐뭇한 자유를 마음껏 즐기거나 하듯이. 순간

“이놈의 팽이.”

윤 박사는 소리를 버럭 지르고 손에 걸리는 라이터를 고양이를 향하여 던졌다. 라이터는 고양이를 바로 맞히고 방바닥에 떨어졌다.

야옹 야옹 야옹 ——

고양이는 몹시 아팠던지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윤 박사는 그 소리가 엄살로만 들렸다. 그는 놀라 뛰어들어온 아내와 역시 놀라 숨을 죽여 버린 장모와 경아 쪽을 돌아보지도 않고 침실로 들어가 옷을 벗지도 않고 누워 버렸다.

이튿날, 언제나처럼 그는 아침 회진 때 이효진 씨 방으로 들어갔다. 대수술을 앞둔 이효진 씨의 부석한 생기 없는 얼굴은 기대와 두려움과 희망과 심려로 긴장되어 있었다. 그는 구세주를 우러러보듯 윤 박사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만성 요독으로 광채를 잃은 노인의 뿌연 눈에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살고 싶소, 살려 주시오. 당신은 나를 살려 줄 수 있소…… 그 눈은 말없이 이렇게 절규하고 있었다. 그 눈에 서린 깊은 신뢰의 빛은 윤 박사를 당혹하게 하였다. 그는 마음의 혼란을 느끼며 간호사가 건네는 차트를 받아 vital sign [生命指數]을 살폈다.

맥박 110, 혈압 최고가 250 최하가 150, 호흡 35, 요량은 20——제로에 가까웠다. 차트에 기재된 혈액 내 단백질은 3 그램%, 요소(尿素)는 100 그램% 그레아치닝이 15 밀리%——노인의 상태는 최악이었다.

순간 전날부터 그의 신경에 거스러미를 돋치고 있던 것의 정체를 그는 알아낸 것 같았다.

‘아빠는 서른 살이에요.’

하던 그 애잔한 음성의 호소 못지않게 노인의 긴박한 용태와 힘없이 풀린 눈에 잠긴 삶에의 절망(切望)과 자기에게 얹고 있는 깊은 신뢰는 저버릴 수가 없도록 의사인 자기에게 강력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노인은 현재의 용태로서는 신장 이식 같은 엄청난 대수술을 받을 수가 없다. 우선 인공 신장기 및 가능한 모든 의료 수단을 총동원하여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마련해야 한다. 이식 수술은 얼마큼 연기된 셈이다.

윤 박사는 막혔던 숨이 일시적이나마 나아가는 것 같은 안도를 느꼈다.

다음 방에는 이효진 씨의 아들 민규가 입원하고 있었다. 장기 이식 수술은 받는 쪽도 생사가 달린 어마어마한 대수술이지만 떼어 주는 쪽도 역시 끔찍한 대수술을 받는 것이 된다. 가능성이란 낙관적으로나 비관적으로나 무한한 것이다.

아무리 치밀한 계산 아래의 신중하고 숙련된 시술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는 자신할 수 없다. 생명 자체에까지는 위험이 미치지 않는다 하여도 일시적 고통이라도 주어서는 안 된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기 제공자는 약 이 주일 전부터 입원하여 정밀한 검사를 받고 최고의 상태로 체력을 다져 놓아야 하는 것이다.

이민규 청년은 나흘 전부터 아버지 옆방에 입원하고 있었다. 명랑

한 청년으로 내장을 떼어 낸다는 끔찍한 일을 겪었던 옷이나 한 벌 벗어 주는 것쯤으로 알고 있는 듯하였다.

“갑갑하군요, 선생님, 수술은 언제 하시죠?”

“적당한 시기를 기다려야죠.”

“전 언제든지 OK예요. 최고 컨디션이죠 뭐.”

그에게서는 비장감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버님 것과 미스터 리 것, 두 분 것이 다 최고 때라야죠.”

윤 박사는 미소를 띄우며 민규의 차트를 훑어보았다.

맥박 70, 혈압 최고 150 최하 80, 호흡 19, 요량(output) 150cc, 요소 14 밀리%, 그레아치닝 1 밀리%, 혈액 내 단백질 4.5 그램 %, 적혈구(赤血球) 500만, 백혈구 7000—— 그야말로 최고였다. 완벽했다.

“최곱니다.”

“최고지요. 핫핫하하…….”

청년은 맹수를 느끼게 하는 건강한 이를 보이며 명랑하게 웃었다. 주름 하나 없는 목이 싱그럽고 속눈썹이 긴 쌍꺼풀 눈에 장난기가 어려 있었다.

“전 윗집에는—— 그는 손가락으로 자기 머리를 가리켰다—— 아무것도 없지만요, 여기는요…….”

하고 가슴을 딱 벌리고

“자신이 있죠.”

윤 박사도 인턴도 레지던트도 간호사도 모두 웃었다. 윤 박사는 진심으로 이 청년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이 청년 앞에서 ‘아빠는 서른 살이에요.’ 하던 그 고운 음성을 상기하지 않았다. 청년이 자아내고 있는 분위기는 밝고 유쾌하고 미소로웠던 것이다.

며칠이 지났다. 인공 신장기는 이효진 씨의 용태를 놀랄 만큼 호전시키고 있었다. 머지않아 그는 수술을 허용하는 상태를 갖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윤 박사는 퇴근 전에 이효진 씨 방에 들러서

잡담을 나누었다.

“좋은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이 회장님, 씩씩하고 솔직하고 명랑합니다.”

이효진 씨는 아들의 칭찬을 듣고 흐뭇한지

“그눔이 제일 나를 많이 닮았죠. 건강하구 호텔하구,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는 것까지. 그눔두 나두 X 대학이지만요, 우리 부자가 다 농구 선수였죠.”

이효진 씨는 활짝 웃었다. 부기가 약간 빠진 얼굴은 이 순간 너무나 아들과 같아 보였다. 짙은 눈썹과 쌍꺼풀진 눈과, 그리고 맹수를 느끼게 하는 이가…….

“나두 그눔 나이 땐 누구 못지않게 건강했었는데.”

이효진 씨는 푸념하듯 말하고 눈을 감았다.

이 말은 윤 박사를 섬뜩하게 했다. 그는 더 말을 잊지 않고 있다가 일어서서 방을 나왔다.

다음으로 들어간 민규 청년의 방에는 젊은 여자가 와 있었다.

“야, 윤 박사님이다. 인사해라.”

민규가 말했다. 이십대로 보이는 가냘픈 여자는 얼굴을 들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이 친구가 요즘 좀 거창한 일을 했죠. 아들을 낳았어요. 핫하…… 제가 바로 그눔의 춘부장이란 말이에요.”

민규는 즐거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싱글벙글했다. 하얀, 사나워 보이는 이가 드러난 건강하고 젊은 얼굴은 속절없이 이효진 씨의 얼굴이었다. 윤 박사는 웬지 그 얼굴을 바로 볼 수가 없었다.

젊은 여자는 시종 얼굴을 들지 않고 말이 없었다. 혈색이 좋지 않은 것은 해산 후 얼마 되지 않은 까닭이겠지만 요즘 젊은 여성치고는 너무 얌전하고 조용했다. ‘아빠는 서른 살이에요.’ 하던 그 음성은 이 여자를 떠나 독립된 별개의 존재처럼 윤 박사 내부에 살고 있었다. 그것은 때때로 윤 박사를 괴롭혔다.

민규가 입원한 지 이 주일째 되던 날 이효진 씨의 수술 날짜가 결정되었다. 집도는 외과의 심 박사가 하기로 하고 팀이 결정되었다. 이런 날을 앞두면 윤 박사는 처음이 아니더라도 역시 흥분하고 긴장을 한다. 술도 담배도 못하는 그는 딸들하고 둉굴고 놀면서 긴장을 풀곤 하였다.

남편의 버릇을 아는 아내는 이럴 때 몹시 조심을 했으나 아이들은 번번이 좋아만 했다. 티없이 자라선지 계집애들은 선머슴 같아 선머슴같이 놀았다.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마구 기어오르고 등에 타기도 하는 것이다. 이날도 경아는 깎깍거리며 아버지에게 감겨들었따. 그려는 딸들과 어울리고 있다가 윤 박사는 얼마 전부터 자기만 보면 눈치를 보면서 달아나던 고양이가 딸들과 함께 자기에게 감기고 있는 것을 알았다. 고양이는 그 동안 좀더 커진 것같이 보였다. 불빛 아래서 세 가지색 털이 자르르 윤을 흘렸다.

“팽이가 왜 방에 들어왔을까?”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알았는지 아내가 방문을 열고 고양이를 밖으로 쫓아냈다.

“이젠 너무 커서 징그러워졌어요. 그놈의 팽이, 새끼두 못 기르면서 제 새끼를 먹구 저만 더 기운이 났지 뭐예요.”

윤 박사는 엎드리고 있던 몸을 껴졌다. 갑자기 심각해진 아버지의 얼굴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아이들을 남기고 그는 서재로 들어갔다.

이날 밤 윤 박사의 서재의 불은 오래도록 꺼지지를 않았다.

다음날 아침 그는 일찍 집을 나갔다. 외과의 심 박사와 상의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팀워크니만큼 어느 개인의 의사만으로 임의로 팀을 해체할 수는 없다. 하물며 수술 당일날이다. 윤 박사의 고민과 주저는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효진 씨 방에는 이날 몹시 긴장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늙은 아내와 큰아들 내외, 딸들이 일찍부터 와 있다가 의사들이 들어서자

그들은 창가로 물러서서 숨을 죽였다.

심 박사의 동의를 얻고는 윗으나 윤 박사는 역시 불안했다. 애써 태연하려 했으나 어디에 시선의 초점을 맞추어야 좋을지 거북하여 그는 연신 눈을 끔벅거렸다.

신경이 예민해 있는 듯한 이효진 씨는 무슨 짐새를 눈치챈 모양이었다. 그는 쌩꺼풀진 눈을 크게 뜨고 윤 박사를 응시했다. 늙고 주름에 싸여 있으나 아들과 꼭 같은 그 눈은

‘그눔이 제일 나를 많이 닮았죠.’

하는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윤 박사의 귀에는

‘나두 그눔 나이 땐 누구 못지않게 건강했었는데.’

하던 그의 말이 울렸다. 이윽고

‘아빠는 서른 살이에요.’

하던 그 곱고 애잔한 음성도.

그는 이제 태연하고 침착할 수 있었다.

“이 회장님, 수술을 좀 연기해야겠어요.”

환자의 얼굴에도, 창가에 물러서 있는 가족들의 얼굴에도 동요의 빛이 서렸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얼마 후 이 회장이 겁을 먹은 듯이 물었다.

“왜요?”

“아드님 상태에 좀 미심한 데가 있어서요. 오늘 다시 정밀 검사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그는 곧 덧붙였다.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결과를 알 수 있지요.”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써 의술을 베풀겠노라.’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의 한 구절이 번개처럼 윤 박사의 머리를 스쳤다. 그는 그 자리에 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검사는 물론 형식이었다. 민규의 상태는 최고, 완벽이었다. 어이

가 없을 정도로 완전 무결한 생명 지수, 정밀한 계산으로 제작된 예술품 같은 아름답고 건강한 육체…… 그러나 그는 지금 신장 이식만이 살 길로 남아 있는 그의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고’ 그의 아버지는 ‘그 나이 때는 누구 못지않게 건강’했다는 것이다. 윤 박사는 자기의 이 음모(陰謀)스러운 결단을 잘못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자꾸만 머리를 드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의 그 한 구절을 아주 지워 버릴 수도 없었다. 그날은 그에게 있어 너무나 긴 하루였다.

다음날 아침 이효진 씨 병실에 들어간 윤 박사는 맡은 역을 제대로 할 자신이 없는 배우처럼 불안에 차 있었다. 환자의 얼굴에 서려 있는 불안과 초조와 기대를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러나 한편 그는 ‘아빠는 서른 살이에요.’ 하던 그 진실에 찬 고운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입을 열었다.

“이 회장님 실은 기우하고 있었던 것이 적중했어요.”

“네?”

“예측한 대로 아드님의 혈액 검사 결과가 그리 좋지 않군요. 건강해 뵐두 그 상태론 신장 적출이 무립니다.”

환자의 얼굴에는 실망과 공포의 빛이 역력히 나타났다. 윤 박사는 현기 비슷한 것을 느꼈다. ‘나는 양심과 위엄으로써…….’

환자는 잠시 말을 잊은 듯 입을 다물었다가

“그거야 수혈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에는 노골한 이기심과 잔인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다. 순간 새끼를 먹고 몸이 좋아진 어미 고양이의 모습이 스쳤다. 윤 박사는 이제 아주 완전히 태연할 수 있었다.

“아니에요. X레이 사진을 다시 찍어 보니깐요, 신장 주변의 혈관이 아주 가늘고 약해요. 이런 신장을 옮기면 거부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위험하죠.”

그의 입에서 술술 말이 쏟아져 나왔다. 환자의 얼굴이 눈앞에서 시커먼 솟덩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이효진 씨의 얼굴은 시커먼 절망으로 말이 아니게 일그러져 있었다.

“다른 기회를 기다리기로 하십시오, 이 회장님. 그 동안 인공 신장 기로 치료를 받으시기로 하시구요. 미국선 그결루 십여 년씩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방을 나오자 복도에서 그 조용한 민규의 아내와 마주쳤다. 그녀는 신장 적출 수술을 하게 된 남편 곁에서 밤을 샌 모양이었다. 창백한 얼굴이 헬쓱해 보였다. 윤박사는

“부인…….”

불러 놓고 다음 말을 잊지 않았다. 의아한 듯 크게 눈을 뜨고 쳐다보는 젊은 여인을 그대로 둔 채 그는 민규 방을 지나쳐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다.

신기하게 짙은 늙은 병든 얼굴과 젊고 아름답고 건강한 얼굴이 눈앞에서 엇갈렸다.

‘나는 양심과 위엄으로써 의술을 베풀겠노라.’

그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가로젓고 때마침 위에서 내려와 머문 승강기 속으로 들어갔다.

(1977. 8.)